

신행수기 당선작 (진흥원이사장상)

사첩법을 애인삼아 ①

양보리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창 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 울해도 어김없이 겨울은 왔는가보다. 옛그때까지도 온 산야를 곱게 물들이던 단풍도 길가에 널부러진 낙엽도 소리없이 찾아온 계절의 변화에 단 한번의 저항도 없이 어디로인지 사라진 것을 보면 멀지않아 또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은 오겠지...

이런저런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기느라 많은 세월을 흘러보낸 나는 이제 한시름을 놓는가 하고 거울을 들여다 보았다. 어느새 머리칼이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으니 부처님의 진리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뼈저리게 몸감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나는 내게 걸어진 길을 되돌아 보면서 조용히 사색에 잠겨본다. 누군가가 인생의 길은 긴 경주라고 했다. 이 경주에서는 앞만 보고 꾸준히 달려야만 승리도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일계관을 쓸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는데 나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로 생존경쟁 속에 뛰어들어 달려야 했으니... 때로는 지친 육신을 정신이 달래주고 피곤한 정신을 육신이 위로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쓰러질 지경에 이르러서야 겨우 목적지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믿음과 부처님의 가피가 한데 어우러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태어난 고장은 대구 근방 채정산 밑에 있는 작은 산골마을이다. 양(楊)씨의 씨족들이 울기둥기 모여사는

평화로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리집은 가장 큰 사람에게 육간대청이 있었고 방이면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우려고 수십명의 서생들이 모여들어 대청을 꼭 메웠다. 아버지는 그 고을에서는 이름있는 한문학자였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실술과 우리말 우리글이 말살되는 것이 안타까워 인근 청소년들에게 한의예지(仁義禮智)와 수신제가(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가르치며 열정을 태우던 훈장님으로 유교사상이 무척했다.

하지만 1년에 두번 초파일과 칠석에는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초파일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칠석에는 자신들의 발복을 위해서 절에 보내신것 같았다. 공양미와 향초 등을 챙겨서 작은 머슴이 들고 앞장을 서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뒤따라 갔다. 지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후 나는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대구로 이주를 했고 즐겁게 다니던 운동사(靈壽寺)는 까맣게 잊어버린채 순조롭게 자라서 중매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앙의 인품과 학벌과 직업이 훌륭하다고 남들이 부러워 하는 가운데 서로서로 신접살림을 시작했다. 나는 별 문제 없이 삼남매(아들 둘과 딸 하나)를 기

세상물정도 모르고 살아온 나는 갑자기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 학비·올려오는 빚쟁이등 무거운 짐을 지고 우왕좌왕 하다 부처님을 찾게됐다

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때의 작은 행복과 평화로운 환경은 당연히 나의 것이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40세가 못되어 집안에 회오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모든 것이 깨지고 말았다.

남편은 작은 생산공장(금속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림·문병성

40세가 못돼 행복했던 집안에 회오리가... 작은 금속공장이 쓰러지자 그 충격으로 남편은 뇌졸중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무너지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뇌졸중을 앓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몇 년후 사망하고 말았다. 그때의 시대상황은 지금처럼 IMF시대는 아니라고 국가에 외세가 많다고 했으며 일차 석유 파동(1973년)에다 건축정책으로 조공은 어려운 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세상물정을 모르고 살아온 나는 갑자기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초중고생) 학비와 올려오는 빚쟁이 등 무거운 짐을 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의지할 곳을 찾아 다시 부처님을 뵈게된 것이다.

이 못 친자들 따라서 처음으로 찾아간 절은 삼각산 정상에 있는 고찰이었다. 불교 교리도 전혀 모른채 나는 급한 마음에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교리는 모르지만 가파른 산길을 오르노라면 번뇌로 지들

어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정신이 한결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자주 산을 오르내리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 일을 당했을 때는 허둥지둥 무척 해매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현실로 다져왔

다. 먹고 입는 문제와 교통비, 학비, 의료비 등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목을 조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처지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어 정성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온 식구가 내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식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살아야 했다. 이유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울바로 키우고

재대로 교육을 시키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일단 목표가 정해진 이상 나는 일단보고 달려야 했다. 그때부터 나와외로운 싸움은 끝없이 이어졌다. 한번 마음놓고 앉아버리면 영원히 좌절할 것만 같았고 한번 벽을 놓고 누워 버리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더욱 내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 일자리를 찾던 중에 '주부수급사원 모집'이란 광고를 보고 내 발로 찾아간 곳이 국내 글자의 보험회사였다. 그만해도 일반인이 계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역시 보험사식이 전연 없는데다 잔뜩 위축되어 있던터라 도저히 못할것 같았다. 하지만 담당 밀천이 없으니 보따리장사도 못하겠고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회사의 유치작전에 말려들어 골짜 못하고 다니게 되었다.

(계속)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 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단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단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단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 ASH(느릅 원목)
■ 규격 : 가로 720 x 세로 340 x 높이 320(단위mm)
■ 가격 : 8만5천원

■ 구입문의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권 佛子 반야 반지 권

불자의 자긍심을 깨웁니다.

-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진(正進),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智力), 의력(毅力), 불력(佛力), 감력(感力), 강력(剛力), 지력(智力), 제력(捷力), 덕력(德力), 변력(變力), 식력(食力), 신력(神力), 지력(智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흥법력(弘法力), 광마력(廣魔力)



상품명: 반야반지
재질: 금, 큐빅(18K, 14K-1.5돈)
가격: 18K-W 130,000, 14K-W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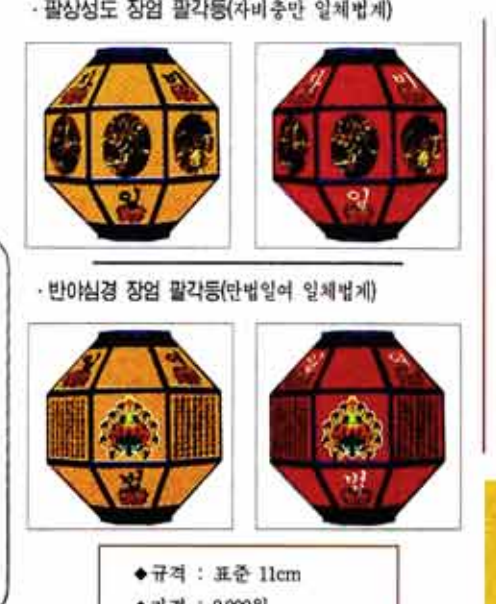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첩 등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입니다.
장엄팔각첩등은
펼칠때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보관하는 팔각등입니다.

-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밀강생상-뽕비나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사방의 문으로 나가지 중생들의 고통을 관할하는 모습
④유상출가상-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삼산수도상-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화량마상-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진법상-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는 모습
⑧쌍림입반상-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갖춘
신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입니다.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200원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 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정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매처 : 불·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형하신 곳으로 직배·택배 발송
* 촛대, 동결이, 이름표 포함

조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홈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
● 만다라 장엄 팔각등
◆ 규격 : 표준 11cm
◆ 가격 : 2,300원
◆ 200동 이상 주문시 10% 할인(2,070원), 사찰명 인쇄
◆ 500동 이상 주문시 20% 할인(1,840원), 사찰명 인쇄